

대학생의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잠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종서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에 있어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기회 인식과 대학생의 창업잠재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학생의 창업잠재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기회 인식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창업교육과 역할모델에 따른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창의성, 리더십, 개인통제는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통계적으로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이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과 개인통제는 통계적으로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성, 리더십, 개인통제는 기회포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기회포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탐색,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보탐색,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유의미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잠재성 간의 관계에서 역할 모델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 및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교육 활동의 대상인 대학생의 창업교육과 역할모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에 대한 지각된 열망과 지각된 실행가능성이 형성되어야만 창업의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의 창업잠재성관련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적 태도, 창업기회 인식, 창업잠재성, 창업교육, 역할모델

1. 서론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에 있어서 청년층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된 국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를 고용 없는 성장 시대라고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체 실업률 4%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학에서의 창업은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및 진로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지원과 각 대학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업은 창업자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취업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창업의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김중석, 2004). 또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에게 창업성향

을 고취시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박철·장유리, 2010).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창업 지표는 양질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말 기준 대학의 창업동아리 수는 5,900여개,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4만명이상이며, 대학생 창업 기업은 1,466개로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4,8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2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당 창업 지원금은 교비와 외부사업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평균 6억여 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대학이 창업지원에 투입한 약 3560억 원 대비 결과는 저조한 성과라 볼 수 있다(대학알리미, 2019; 2020).

또한,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 역시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5.1%로 취업 56.1%, 대학원 진학 12.5%보다 매우 낮으며, 대학생의 창업의 지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

*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jsson@sm.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unny@cau.ac.kr

· 투고일: 2021-03-14 · 수정일: 2021-04-12 · 게재확정일: 2021-04-23

원, 2020). 따라서 대학생들이 창업에 뛰어들도록 호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의지와 창업의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적 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모델(Shapero, 1982)을 응용하여 대학생의 창업태도를 확인하고 의도적인 행동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와 달리 종속변수를 창업의도로 보지 않고 창업잠재성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은 창업에 상응하는 의지 없이 창업 활동의 큰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창업가들은 2~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hapero, 1982).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경우 창업잠재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학생들이 쉽게 창업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창업에 대한 인지된 욕망이나 지각된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창업잠재성은 창업기회인식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창업기회인식은 인지된 가망성과 인지된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Gatewood et al., 1994). 인지된 가망성은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매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인지된 타당성은 개인적으로 창업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창업잠재성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의지가 높으며,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잠재성이 창업의지의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입증한 다수의 연구(Zhao et al., 2005; Lee et al., 2011)가 있지만 대학생의 창업잠재성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잠재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잠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성격특성에 가까운 기업가정신보다 대학창업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 기회인식이 창업잠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잠재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창업잠재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선행요인에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하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태도를 말한다.

Lumpkin & Dess(1996)는 기업가적 태도를 경쟁자들과 차별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실행이라고 정의했다. 즉 기업가적 태도는 의사결정 방식, 방법, 실행에 대한 전략적 성향이나 태도라고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업가정신은 무엇을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가적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태도를 유사한 의미로 간주하며, 그 표현을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기업가적 경영(entrepreneurial management) 등으로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다.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가의 행동에 선구자이기 때문에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교육적인 배경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창업가에게 기업가적 진취성(initiative)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Gibson et al., 2011). 기업가의 태도는 환경과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통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창업교육은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에 성공을 위한 예측을 향상시키고, 기술 습득을 통해 창업가적 능력(faculty)을 향상시킬 수 있다(Gibson et al., 2011). 즉, 기업가적 태도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의 기회를 인식하거나 창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고, 이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가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binson et al.(1991)는 기업가의 활동을 예측하는데 사고방식의 측정하기 위한 기업가적 태도 지향성(Entrepreneurial Attitude Orientation, EAO) 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EAO 요인의 범위는 특정 조건에 근거한 측정을 포함하여 선택되었다. 그 범위는 일관되게 기업가정신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기업가정신을 평가하기 위해 실증연구에서 측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가의 창의성(creativity), 리더십(leadership), 통찰력(Intuition), 성취감(achievement), 개인통제(personal control) 등 5가지 범위를 선정하였다.

2.2 창업교육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단연코 창업교육에 대한 것이다. 창업교육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Kourilsky(1995)는 창업교육을 기회 인식, 리스크 내에서 자원 획득과 벤처 개발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Kraaijenbrink, et al.(2010)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교육 지원이다. 이 지원에서는 여타의 다른 교육기관처럼 창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창업과 관련된 강좌나 워크숍, 학위 등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컨셉 지원이다. 이 지원에서는 창업 초기예비 창업자들의 기회인식 및 개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컨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사업 지원이다. 컨셉 지원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면 사업 지원은 창업자 개인이 아닌 창업기업에 창업 후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사실 컨셉과 사업 지원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나 멘토링에 가깝지만 Piperopoulos와 Dimov(2015)가 정리한 실습 교육에서 멘토링도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므로 이들의 세 가지 창업지원은 창업교육으로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세 가지 창업교육 분류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컨셉 지원을 통해 창업의 핵심이 되는 기회개발 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사업 지원을 통해 흔히 많은 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창업의 후반 단계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Munoz, et al.(2011)는 창업교육이 학생의 기회식별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설병문·홍효석(2013)은 창업자의 창업교육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인식 및 발견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비즈니스 기회인식과 발견을 조병주(1998)의 연구에 기반하여 우연적 기회, 의도적(체계적) 탐색, 열길 효과 등 세 가지 유형의 기회로 분류하였는데, 연구결과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기회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처럼 의도적으로 기회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열길 효과의 효과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적으로 기회를 얻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은 잠재적인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능력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으로 혁신, 창의성,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조정 및 협력의 역량, 위험감수성 등 창업가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Leffler, 2006).

2.3 역할모델

조직 내에서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발휘와 기존 구성원의 충

분히 도움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 구성원 중에서 새로운 조직 구성원과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받는 새로운 조직 구성원은 물론 그 조직 자체도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문영주·황미경, 2007).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조직 구성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를 역할모델이라고 한다.

Bandura(1977)는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관찰을 통해 학습하고, 이러한 행동이 강화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재창조된다고 하였다. 이때 배움 또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역할모델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역할모델은 개인의 관심사 및 관련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역할모델의 경험이 주요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구성원 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혁신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이 실패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성공적인 역할모델은 잠재적 기업가에게 본인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방향으로 잠재적 기업가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의 예로서 영감을 준다(Crant(1996). 그러나 실패하거나 불운의 경험이 있는 역할모델은 실패에 전형적인 예로써 미래에 발생할 문제의 실패를 막기 위해 잠재적 기업가가 피해야 하는 행동을 강조할 수 있다(Crant, 1996).

Crant(1996)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창업자 부모의 존재 여부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의 성공적인 역할모델로서의 역할이 응답자의 기업가적 성향을 고취시키고 이는 다시 창업에 대한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4 창업기회인식

창업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Schumpeter(1934)가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창업기회는 광의적 차원에서 자원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Kirzner, 1973).

창업가가 기회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기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의 성공 및 실패와 직결된다. 사업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무심코 발견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난다(Vesper, 1990).

기업가가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써 창업

기회를 인식하는 방식과 활용에 따라 창업의 성패와 직결된다. Koller(1988)는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 유경험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는 의도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미리 창업을 확신한 반면, 나머지 55%는 창업의 욕망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인식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창업가는 전직 경험과 훈련된 창업가의 역량을 중심으로 창업기회를 의도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비의도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면 분석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창업의 기회를 인식하는 원천을 살펴보면 정보탐색, 정보결합, 기회포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창업기회 인식은 창업의 원천인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탐색을 통해 기술적 실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정보탐색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 기존사업, 프랜차이즈, 특허권, 라이선싱 등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정보결합은 창업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뜻밖의 성공과 실패, 기대했던 현실과 실제 나타난 현실 간의 부조화, 창업의 필수적인 절차, 급변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 인구 동향의 변동, 새로운 지식 등 창업자의 실제 경험은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탐색과 함께 정보결합도 중요하다. 셋째, 창업가의 기회포착 능력이 중요하다. 창업의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업가는 창업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창업가는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 넓은 시야와 업계 흐름 및 전망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5 창업잠재성

기업가적 프로세스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의 정의 또는 응용에 의해 나타나는 사건, 사건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대표되는 대리인 등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다(Morris & Jones, 1999). 잠재적인 기업가는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별하는 성격특성, 성별, 연령, 교육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을 창출하려는 창업잠재성은 기업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힘이다(Krueger, 1993). 창업잠재성은 창업기회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창업기회 인식은 인지된 가망성과 인지된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Gatewood et al., 1994).

창업 잠재성(Potential entrepreneurs)은 Shapero(1981)가 경제적 환경에서 조직이나 공동체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혁신(self-renewing)의 탄력적인 개념으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잠재적인 창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두드러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잠재력을 창업의도를 가지기 전에 창업가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Krueger & Brazeal, 1994). 또한, 창업잠재성은 창업을 계획하는 데 있

어 구체적인 행동이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잠재적인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두드러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잠재력이 창업의도에 전에 기업가에게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Krueger & Brazeal, 1994). 잠재적인 기업가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는 창업자의 성향과 창업의도의 차이에서 구분되고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인 기업가는 자영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Lengyel, 2012).

대학생은 창업에 상응하는 의지 없이 창업 활동의 큰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창업가들은 2~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hapero, 1982).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경우 창업잠재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학생들이 쉽게 창업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창업에 대한 열망이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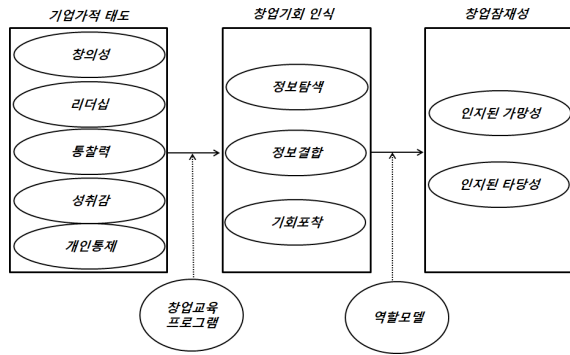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Krueger & Brazeal(1994)가 제시한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에서 가까운 장래에 기업가가 될 의도(intentions)를 갖지 않은 청년층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창업 잠재성을 개념화하였다. Shapero(1981)는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으로 ‘창업 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 모델을 사용하였다. 인지된 가망성(perceived desirability)과 개인이 창업에 대해 지각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업가의 특성을 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 기업가정신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이는 창업경험이 없는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 잠재성에 대한 선행요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Krueger & Brazeal, 1994).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잠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과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조절효과와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잠재성과의 관계에서 역할 모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본 연구에서는 Robinson et al.(1991)이 제안한 EAO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에 근거한 측정을 포함하여 기업가적 태도의 하부 요인을 기업가의 창의성(creativity), 리더십(leadership), 통찰력(Intuition), 성취감(achievement), 개인통제(personal control)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는 창업에 대한 잠재적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가의 창업에 대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기회는 창업가가 진출하려는 시장의 니즈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이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한다(Von Hippel, 1994). 이러한 창업기회를 창업가가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익의 기반이 되는 창업기회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Kirzner, 1997).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자가 그 기회를 인식 및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창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창업경험이 제한된 창업가는 창업관련 정보를 획득하면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자원을 습득할 수 있다(Liu et al., 2014).

기업가에게 창업기회의 인식은 중요한 요소로써 창업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는 창업에 대한 성과와 직결된다. 기업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지식을 통해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업가마다 창업기회를 다르게 인식한다(Ronstadt, 1988). 창업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심코 발견하는 창업가가 대부분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는 의도적인 창업보다는 우연에 의한 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Vesper, 1990).

Dekoning(1999)은 창업가가 창업기회를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의 필요나 미사용된 자원을 감지하는 것, 둘째, 시장의 필요와 특정한 자원 사이의 적합성인 인지하거나 발견하는 것, 셋째,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와 자원 사이에 새로운 적합성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창업가의 경험과 창업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토대로 우연히 발견에 인지한 창업의 기회를 창업가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

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이상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성취감 등 기업가적 태도 요인과 정보탐색, 정보결합, 기회포착 등 창업기회인식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1 : 창의성은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 리더십은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 통찰력은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 성취감은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 개인통제는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 창의성은 정보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 리더십은 정보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 통찰력은 정보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 성취감은 정보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5 : 개인통제는 정보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 창의성은 기회포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 리더십은 기회포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 통찰력은 기회포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 : 성취감은 기회포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5 : 개인통제는 기회포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잠재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창업기회인식은 기업가의 노력과 활동에 의존하는 창조적인 프로세스로서 일련의 활동을 기초로 구체화된 가능성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은 창업가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Dutta & Thornhill, 2014).

잠재적 기업 가능성은 자원 및 시장 조건에 접근하는 유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창업 잠재성이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잠재적인 창업가의 창업기회 인식은 경제적 환경에서 조직의 평가를 위한 자기혁신을 통해 창업에 대해 느끼는 가능성이 향상된다(Athayde, 2009).

창업잠재성은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창업잠재성은 창업가가 지각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창업가의 행위를 통해 미래에 기대되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지각된 상황, 기대, 태도, 신념, 선호도는 창업잠재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yan, 1970). 창업잠재성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로써 창업활동의 추진력이다(Wu & Wu, 2008).

창업잠재성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Shapero & Sokol(1982)의 창업 이벤트 모형(SEE)이고, 둘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BP)이다. SEE모형은 창업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각된 창업가

망성(perceived feasibility), 창업타당성(perceived desirability), 및 행동하려는 경향(propensity to act) 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TPB모형은 창업잠재성의 선행변수로서 행동을 향한 개인의 태도(personal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Wu & Wu,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 정보결합, 기회포착 등 창업기회인식과 인지된 창업 가망성, 인지된 창업 타당성 등 창업잠재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4-1 : 정보탐색은 인지된 창업 가망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 정보결합은 인지된 창업 가망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 가망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1 : 정보탐색은 인지된 창업 타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2 : 정보결합은 인지된 창업 타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3 :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 타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조절효과

창업교육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방법이다. 창업교육은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훈련 및 교육이라는 한정적 범위를 벗어나 최근에는 창업과 관련된 지식, 직무수행에 대한 태도 등 예비창업자 및 피고용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주미 외, 2007). 즉,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기회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창업기회와 관련된 발명을 착상 및 개발하게 만들고, 목표대상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전략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생존 가능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준다.

창업교육은 이론에 중점을 두는 창업교육, 실습에 중점을 두는 창업 교육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교육은 창업가의 특성과 성향, 의무, 창업의 절차 및 리스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교수자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동적 학습법이 사용된다. 실습교육은 아이디어 창출, 창의성, 사업계획서 피칭, 팀빌딩(Team-Building), 네트워킹, 판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동에 의한 학습, 멘토링, 시뮬레이션 등의 학생 주도적 학습법이 사용된다(Piperopoulos & Dimov,

2015).

Beaver(1995)는 기업가에게 개인적 능력, 경영능력, 기술적 능력 등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창업교육이 창업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umpkin et al., 2004 은 창업의 기회를 인식하여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창업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설병문과 홍효석(2013)은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 및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발견하는 역량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민정·박재환(2017)은 창업교육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효능감과 향상초점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 프로세스의 핵심은 차별적인 기회를 개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에는 올바른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Lumpkin et al., 2004). DeTienne & Chandler(2004)는 기회식별 교육 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이 비즈니스 기회 인식과 기회의 혁신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Munoz(2011)도 창업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교육 첫날과 마지막 날 기회식별능력의 발전도를 평가한 결과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회식별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였다.

잠재적인 창업가의 효과적인 창업교육은 창업의 성공을 향상시키고, 창업가가 창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통해 창업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Gibso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 H6 :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기회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2.4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 잠재성 간의 관계에서 역할모델의 조절효과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역할모델이라고 한다. 역할모델은 본보기 대상 인물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그 영향력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수렴하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영주·황미경, 2007; 박새미, 2009).

역할모델이 특정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Gibson(2003)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역할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모델을 제공하며, 개인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역할모델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 및 동기,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개인은 역할모델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그림을 그리게 된다(BarNir et al., 2011; Blanton, 2001; Buunk et al., 2007)

Greenberger & Sexton(1988)은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였고, Scherer와 Adams, Carley 그리고 Wiebe(1989)은 역할모델의 관찰로 부터 어떻게 자원이 확보되는가에 대한 성공요인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잠재적 창업가는 창업을 위해 역할모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을 통해 강화되면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재창조된다(Bandura, 1977). 이는 이미 창업을 경험한 역할모델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창업가의 창업 활동에 적용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혁신을 통해 창업의 실패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Buunk et al., 2007). 역할모델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기회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서 역할모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H7 : 창업기회 인식이 창업 잠재성에 미치는 효과는 역할모델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3.3.1 기업가적 태도

3.3.1.1 창의성

설립된 기업을 단순히 운영하는 운영자와 혁신을 하는 기업가는 구분된다. 혁신자로서의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그리고 생산방식을 도입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며, 산업 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형성시킨다(Schumpeter, 1934).

혁신자에 의한 혁신은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Schumpeter, 1950). 이러한 혁신의 개념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창의성으로 다루어져 왔다(Timmons & Spinelli, 2004). 창의성은 경제 활동의 혁신적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Curran & Burrows, 1986; Morrison, 1998), 혁신적 활동의 선행지표이다(Athayde, 2009).

3.3.1.2 리더십

Athayde(2009)는 주로 기업관리 측면에서 연구된 리더십을 기업가정신 연구영역에 적용시켰다. 즉, 기업가적 리더는 기회를 추구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문화를 기업 내에 장려하기 때문에(Covin & Slevin, 2002) 리더십은 기업가정신에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가정신은 리더십의 유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Vecchio, 2003).

리더십 개념에는 팀 구축, 신뢰 구축, 자기선도자(self-starter)되기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행동적 측면이 포함된다(Gibb, 1993; Timmons & Spinelli, 2004).

3.3.1.3 통찰력

직감의 개념은 기업가정신과 관련성이 낮았지만, 직관력은 대처 능력과 관련될 수 있는 차원입니다. 특히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황, 종종 기업 창출과 관련된다(Gibb, 1987). 기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기회인지 능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바꾸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며(Alvarez & Barney, 2002; Krueger & Brazeal, 1994).

Allison과 Chell 그리고 Hayes(2000)는 기업가들은 관리자보다 인지적 스타일이 더 직관적이었으며, 기업가 활동에서의 직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3.1.4 성취감

성취욕구 또는 성취동기는 대표적인 동기이론들 중 하나로 McClelland와 그의 동료들이 10여 년에 걸쳐 연구한 이론으로(McClelland, 1961; McClelland et al., 1953), 기업가특성의 초기 연구부터 다뤄져 온 주요 개념으로 창업 및 기업 성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Robinson et al., 1991).

3.3.1.5 개인통제

창업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제위치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내적 통제위치), 그렇지 않은가(외적 통제위치)를 말한다(Rotter, 1966). Robinson et al.(1991)은 통제위치 개념을 자기통제로 구체화시켰다. 자기통제란 개인이 본인의 사업에 대해 얼마 정도나 통제하고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3.3.2 창업기회 인식

창업자는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기업설립의 절차를 통해 창업에 이른다.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창업기회 인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며, 창업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반드시 좋은 사업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회를 발견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업의 방향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권기환·권기훈, 2011). 기회인식은 잠재적인 창업자가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신제품, 서비스, 원재료, 원재료의 새로운 결합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목적과 수단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과정을 말한다(Ardichvil et al, 2003; Renko et al, 2012).

3.3.3 창업잠재성

Shapero(1982)는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영역(intrapersonal)의 인식 뿐 아니라 외부적인 영역(extrapersonal), 즉 주위의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매력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 하였다. 성공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가망성(perceived Feasibility)이란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개인의 신념과 능력을 말한다. 즉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Krueg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Lucas & Cooper(2005), Almqvist & Bjornberg(2010), Emin(2004), Fitzsimmons & Douglas(2005), Vazquez et al.(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인지된 가망성을 창업가가 창업에 대해 느끼는 매력을 통해 창업 행동을 창출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써 인지된 가치로 정의하였다. 또한 Lucas & Cooper(2005), Aliouat과 Ben Cheikh(2009) 등의 연구에 기반하여 창업가의 인지된 타당성을 창업가가 사업을 현실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지각하는 척도로서 창업가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3.3.4 창업교육

Kourilsky(1995)는 창업교육을 기회 인식, 리스크 속에서 자원 획득, 벤처 개발에 대한 교육이라고 주장하였으며, Bechard & Toulouse(1998)는 비즈니스 창출과 소기업 개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김문희(2016)는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시키며, 향후 기업의 핵심 인재, 창업, 협회 활동에 필요한 역량함양과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3.5 역할모델

역할모델은 개인의 경험을 대신할 수 있어 개체의 창업기회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창업 잠재성을 가진 학습자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성공한 창업가를 보면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할모델의 영향력이 주로 반복적인 업무성취로 인한 경험의 통달, 직접 개입이 아닌 관찰에 의한 학습, 과업이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회적 설득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86). Scherer et al.(1989)이 주장하는 역할모델의 중요성은 역할모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창업기회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 동기,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은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BarNir et al., 2011; Blanton, 2001; Buunk et al., 2007).

3.3.6 변수의 조작적 정의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기업가적 태도	창의성	혁신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 활동을 이끄는 혁신적 프로세스에서 창의성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	Athayde(2009); Athayde(2012)
	리더십	진취적인 행동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과 속성	
	통찰력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정도	
	성취감	목표 설정, 인내, 동인, 열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내는 정도	
창업 기회 인식	개인 통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Kirzner(1973); Kaish & Gilad(1991); Busenitz, Tang, J, et al.(2012)
	정보 탐색	사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이들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인식	
	정보 결합	사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자신과 연관시키는 정도	
창업 잠재성	계획 포착	사업 기회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과정	Kim & hunter(1993), Robinson et al.(1991), Krueger(1993)
	인지된 창업 가망성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개인의 신념과 능력	
	인지된 창업 타당성	창업에 대한 사업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역할모델	창업관련 역할모델을 가지는 것이 창업기회인식을 고취	Peterman & Kennedy(2003)	
창업교육프로그램	비즈니스 창출, 소기업 개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	Athayde(2012); Kourilsky(1995)	

IV.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함에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기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기회 인식이 창업잠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한국대학의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지면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설문방식과 구글독스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방식으로 총 2가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한국 대학의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5일 동안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은 30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73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측정 개념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SmartPLS 2.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창업가 태도 지향성, 창업가적 기민성, 창업잠재성 간의 경로 분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SmartPLS(Smart Partial Least Square)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문항과 구성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SmartPLS 분석에서의 설명력은 분산설명력인 R^2 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R^2 평균과 공통성 평균의 기하평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2.0을 활용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설문은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구성

설문 그룹	변수	측정내용	측정 항목	출처
I 그룹	기업가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성취감 -개인 통제	1-6 7-12 13-18 19-24 24-30	Athayde(2009), Athayde(2012)
II 그룹	창업기회 인식	-정보 탐색 -정보 결합 -기회 포착	1-6 7-10 11-15	Kirzner(1973), Kaish & Gilad(1991), Busenitz, et al.(2012)
III 그룹	창업 잠재성	-인지된 창업 가망성 -인지된 창업 타당성	1-5 6-8	Kim & hunter(1993); Robinson et al.(1991), Krueger(1993)
IV 그룹	역할 모델	-주변 창업가에 노출	1-5	Peterman & Kennedy(2003)
V 그룹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관련 교육내용	1-4	Athayde(2012)
VI 그룹	인구 통계학	-성별, 학력, 연령, 가족 중 창업자 유무		연구자

창업교육의 설문문항은 Athayde(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프로그램은 창업 관련 실습수업(캐쉬클래스, 캡스톤)을 적극 제공하도록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팀 구성을 통한 창업체험 활동(사업계획서 작성)을 적극 수행하도록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척도를 이용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역할의 설문문항은 Peterman & Kennedy(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귀하의 부모님이나 친척이 사업(창업)을 많이 했다.’, ‘귀하가 아는 주변 사람이 창업을 많이 했다.’ ‘귀하는 작거나, 새로운 창업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귀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해 볼 생각이다.’ ‘위의 각각 창업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고려해볼 때 당신의 창업에 대한 경험(생각)은 긍정적이다.’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척도를 이용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V. 실증분석

5.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총 273명의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전공, 창업업종, 창업초기자금 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08명(40.3%), 여성은 160명(59.7%)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전공은 경영 85명(32.3%), 이공계 80명(30.4%), 인문사회 79명(30.0%), 예술/디자인 19명(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희망 창업업종을 살펴보면, 지식서비스업 78명(38.8%), 정보통신업 58명(28.9%), 제조업 33명(16.4%), 도소매업 32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자금을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 38명(13.9%), 500만원~1000만원 미만 65명(23.8%), 1000만원~2000만원 미만 60명(22.0%), 2000만원 이상 94명(34.4%)으로 나타났다.

5.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통계검증에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주로 사용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복합신뢰도 측정은 측정변수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평가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0.7 이상이 평가기준이 되고, 평균분산추출(AVE)에 대한 구성 개념은 측정변수를 설명하는 분산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며 0.5 이상이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된다. 반면, 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되면 판별타당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Yu, 2012; Chin, 1998; Fornell & Larcker, 1981).

<표 3> 측정모델 결과

잠재 변수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t-값	C.R.	Cronbach's α	AVE
창의성	내 상상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강의를 좋아한다.	0.822	37.981	0.883	0.825	0.653
	교수님께서 새로운 티칭방법을 시도하는 강의를 좋아한다.	0.812	30.900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공하는 교수를 좋아한다.	0.814	29.823			
	동료들이 아이디어를 잘 발휘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0.785	24.136			
리더십	동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한다.	0.876	54.770	0.884	0.803	0.717
	그룹 스터디를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조직화하는데 책임을 지는 편이다.	0.785	24.747			
	동료들이 동기부여 되도록 잘 이끌어 주는 편이다.	0.877	47.181			
통찰력	직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0.879	20.371	0.846	0.638	0.733
	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직감적으로 하는 편이다.	0.833	15.414			
성취감	내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열심히 한다.	0.864	47.867	0.891	0.848	0.622
	프로젝트가 잘 끝났을 때 기분이 좋다.	0.753	20.558			
	나는 할 수 있는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658	10.972			
	나는 나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819	27.467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0.834	35.849			
개인 통제	나의 미래 직업적 성공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0.720	17.452	0.878	0.827	0.591
	나의 미래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0.806	33.600			
	내 미래 직업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다.	0.678	11.556			
	내 미래 직업 생활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0.825	30.868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만큼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0.804	31.789			
정보 탐색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0.787	27.073	0.848	0.731	0.651
	나는 정보를 찾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	0.846	47.567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 잡지, 경제지 또는 무역출판물 등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0.785	25.286			
정보 결합	나는 종종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 새롭게나 흥미로운 정보를 감지한다.	0.699	13.650	0.830	0.696	0.621
	나는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정보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0.842	37.196			
	나는 인생의 경험들을 연결하여 인생의 의미를 구축하곤 한다.	0.817	30.343			
기회 인식	나는 잠재적인 기회를 잘 포착하는 편이다.	0.830	38.983	0.909	0.875	0.667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와 비영리적인 기회를 구분할 수 있다.	0.835	38.575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0.854	41.948			
	나는 가치가 낮은 기회와 가치 높은 기회를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다.	0.813	23.912			
	여러 기회에 직면했을 때 나는 최선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0.749	25.979			
인지된 창업 가망성	나는 창업하기를 원한다.	0.838	39.434	0.745	0.921	0.885
	나는 창업에 아주 열성적이다.	0.918	95.517			
	나는 창업을 위해 과로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0.842	40.050			
	나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0.851	33.277			
인지된 창업 타당성	나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0.889	51.143	0.925	0.878	0.804
	나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916	76.031			
	나는 창업 시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어떻게 고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885	48.728			

<표 3>과 같이 측정모형의 각 차원이 AVE가 0.5 이상이 되거나,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63~0.91 사이 (0.7 이상이 가장 바람직함), 측정된 값의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일 때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 (Critical Ratio) >1.965, p<0.05)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Yu,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2). <표 3> 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500)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표 4>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성취감	개인 통제	정보 탐색	정보 결합	기획 인식	인지된 창업기망성	인지된 창업타당성
창의성	273	3.879	0.777	0.808									
리더십	273	3.604	0.754	0.502	0.847								
통찰력	273	3.640	0.759	0.360	0.269	0.856							
성취감	273	3.996	0.483	0.490	0.479	0.274	0.789						
개인통제	273	4.227	0.626	0.429	0.422	0.258	0.565	0.769					
정보탐색	273	3.365	0.841	0.441	0.531	0.198	0.345	0.465	0.807				
정보결합	273	3.692	0.795	0.463	0.493	0.305	0.341	0.349	0.499	0.788			
기획인식	273	3.420	0.815	0.425	0.549	0.129	0.372	0.412	0.595	0.601	0.817		
인지된 창업기망성	273	2.825	1.107	0.408	0.322	0.134	0.216	0.288	0.501	0.352	0.569	0.941	
인지된 창업타당성	273	2.774	1.069	0.252	0.290	0.025	0.140	0.228	0.443	0.362	0.513	0.691	0.897

* 대각행렬 값은 AVE의 제곱근

<표 4>와 같이 측정모형의 경우에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인 0.691(인지된 창업기망성과 인지된 창업타당성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인(0.691)²=0.477보다 인지된 창업기망성의 AVE(0.885)와 인지된 창업타당성의 AVE(0.804)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5.3 구조모형 분석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 최대화 즉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LISREL나 AMOS 등을 사용하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어지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이를 대신에 <표 5-6>과 같이 다음 세 가지(R²값, 중복성(redundancy)값, 공통성(communality) 값)를 종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판단하게 된다(Tenenhaus et al. 2005; Hulland, 1999; Chin, 1998).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뜻하는 결정계수 R²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나누어 판단하며, 내생변수의 R²값을 살펴보면 평균이 .344(>0.26)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으며, 평균이 .0002로 나타나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조모형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값 및 각 차원들의 공통성(communality)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의 값으로 산출되고,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484로 나타나 GoF의 평가 기준이 상(>0.3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변수	R ²	중복성	공통성
창의성			0.653
리더십			0.717
통찰력			0.733
성취감			0.622
개인통제			0.591
정보탐색	0.373	-0.034	0.651
정보결합	0.324	-0.001	0.621
기획인식	0.363	0.008	0.667
인지된창업기망성	0.365	-0.007	0.745
인지된창업타당성	0.295	0.035	0.804
평균	0.344	0.0002	0.680
전반적 만족도		0.484	

5.4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여 각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

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Cotterman & Senn, 1992).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값 및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요약하였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정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alpha=.05$ 에서 $|t| > 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Yu, 2012).

H1~5를 검증한 결과, 창의성($t=2.805$), 리더십($t=5.858$), 개인통제($t=4.487$)는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통계적으로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2~5를 검증한 결과, 창의성($t=2.805$), 리더십($t=5.858$), 통찰력($t=2.411$)이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과 개인통제는 통계적으로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3~5를 검증한 결과 창의성($t=2.350$), 리더십($t=6.611$), 개인통제($t=2.372$)는 기회포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기회포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리더는 기회를 추구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문화를 기업 내에 장려하기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에서도 기업가적 리더십은 기회발견, 정보결합, 기회포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vin & Slevin, 2002). 이는 기업가적 리더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다.

창의성은 경제활동의 혁신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연구자가 주장해 오고 있다. 혁신적인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그리고 생산방식을 도입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며, 산업 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형성시킨다(Schumpeter, 1934).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에서도 기업가적 창의성은 기회발견, 정보결합, 기회포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 Burrows, 1986; Morrison, 1998). 이는 기업가적 창의성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적 활동에 대한 선행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Athayde, 2009).

기업가적 자기통제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통제하고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이며,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에서도 기업가적 자기통제는 기회발견, 기회포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et al., 1991). 이는 기업가적 자기통제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통제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기업가적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한 환경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바꾸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며,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에서도 기업가적 통찰력은 정보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varez & Barney, 2002; Krueger & Brazeal, 1994). 이는 기업가적 통

찰력은 창업기회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업가적 성취감은 창업 및 기업의성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Robinson et al., 1991).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에서도 기업가적 성취감은 기회발견, 정보결합, 기회포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연구결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기업가적 성취감이 창업기회인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4-3을 검증한 결과 정보탐색($t=6.675$), 기회포착($t=3.474$)은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5-3을 검증한 결과 정보탐색($t=5.270$), 기회포착($t=2.227$)은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창업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재학·양동우, 2016). 이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와 일치한다. 즉, 창업 전 단계의 사업기회발견을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할수록 창업에 대한 자신감 및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검증 결과	
H1-1	창의성	→	정보탐색	0.180	0.064	2.805	채택
H1-2	리더십	→	정보탐색	0.403	0.061	5.858	채택
H1-3	통찰력	→	정보탐색	-0.016	0.055	0.298	기각
H1-4	성취감	→	정보탐색	-0.068	0.070	0.251	기각
H1-5	개인통제	→	정보탐색	0.279	0.062	4.487	채택
H2-1	창의성	→	정보결합	0.226	0.071	3.188	채택
H2-2	리더십	→	정보결합	0.310	0.065	4.762	채택
H2-3	통찰력	→	정보결합	0.117	0.048	2.411	채택
H2-4	성취감	→	정보결합	-0.002	0.070	0.035	기각
H2-5	개인통제	→	정보결합	0.092	0.064	1.434	기각
H3-1	창의성	→	기회포착	0.168	0.072	2.350	채택
H3-2	리더십	→	기회포착	0.403	0.061	6.611	채택
H3-3	통찰력	→	기회포착	-0.092	0.057	1.634	기각
H3-4	성취감	→	기회포착	0.018	0.070	0.251	기각
H3-5	개인통제	→	기회포착	0.183	0.077	2.372	채택
H4-1	정보탐색	→	인지된 창업가망성	0.423	0.063	6.745	채택
H4-2	정보결합	→	인지된 창업가망성	-0.014	0.069	0.198	기각
H4-3	기회포착	→	인지된 창업가망성	0.258	0.074	3.474	채택

H5-1	정보탐색	→	인지된 창업타당성	0.370	0.070	5.270	채택
H5-2	정보결합	→	인지된 창업타당성	0.067	0.068	0.986	기각
H5-3	기회포착	→	인지된 창업타당성	0.183	0.082	2.227	채택

PLS에서 조절효과의 크기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항이 없는 경우와 상호작용항이 있는 경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서 조절효과를 언급할 수 있으며, 조절효과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Chin, 1998).

$$f^2 = \frac{R_2^2 - R_1^2}{1 - R_2^2}$$

여기서, f^2 = 조절효과지수

R_1^2 = 주효과모델(상호작용항포함미전모델)의 설명력

R_2^2 =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조절효과의 해석은 계산된 값이 0.35이상일 경우 상의 효과, 0.15는 중간, 0.02이하 일 때 소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Cohen, 1988).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적합성 검정을 실시했으며, H6의 경우 기업가적태도와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조절효과의 크기를 검증한 결과의 0.020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02), H7의 경우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잠재성 간의 관계에서 역할모델의 조절효과 검정을 한 결과의 0.028로 나타나 조절효과의 크기가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0.02 < < 0.15$).

다음으로 경로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t값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1.96이 된다(Hair et al., 2012). 검증한 결과 H6의 경우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7의 경우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잠재성 간의 관계에서 역할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절효과 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검증 결과
H6	창업교육프로그램*기업가적태도 → 창업기회인식	0.913	0.407	2.246	채택
H7	역할모델*창업기회인식 → 창업 잠재성	0.808	0.330	2.453	채택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대학생의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 잠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대학생들이 쉽게 창업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창업에 대한 열망이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반영하

여 기업가 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모델(Shapero, 1982)을 응용하여 대학생의 창업태도를 확인하고 의도적인 행동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와 달리 종속변수를 창업의도로 보지 않고 창업잠재성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격특성적 접근방법보다는 태도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적 태도의 하위변수로 성취감, 개인통제,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가 교육의 효과와 역할모델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창의성, 리더십, 개인통제는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통계적으로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리더십 및 개인통제가 높으면 정보탐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이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과 개인통제는 통계적으로 정보결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리더십 및 통찰력이 높으면 정보결합을 더 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창의성, 리더십, 개인통제는 기회포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찰력과 성취감은 기회포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리더십 및 개인통제가 높으면 기회포착을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회인식 및 기회발견의 선행변수들로는 태도와 개인의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연구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Ko & Butler, 2007; Corbett, 2007; Dyer et al., 2008; Krueger, 2009; Gemmill et al., 2012; Wang et al., 2013; Wasdani & Mathew, 2014; Shane & Nicolaou, 2015; Javis, 2016).

창업기회 인식과 인지된 창업가망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보탐색,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가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senitz et al.(2012)의 연구결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회 인식과 인지된 창업타당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보탐색, 기회포착은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결합은 통계적으로 인지된 창업타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senitz et al.(2012)의 연구결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유의미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창업기회 인식과 창업잠재성 간의 관계에서 역할모델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기업가적 태도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대학의 창업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은 중요하다는 점이다. Cox et al.(2002)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교육이 창업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이 어려운 과정이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호기심과 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창업교육의 활성화에 비하여 창업교육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꾸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혜림, 2016).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잠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Saeed et al.(2013)이 개발한 행동에 기반한 실제성이 반영된 창업교육을 도입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즉 인지된 창업교육(perceived entrepreneurial education)의 강화로, 대다수의 대학에서 창업교육은 이론적인 성향이 강하여 실무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창업을 이론의 학문적 접근보다는 창업교육이 단순히 창업의 수단인 아닌 도전정신 함양과 진로의 과정으로 당당히 창업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임을 인식시켜주는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창업잠재성을 높여서 향후에 기업가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 역할모델은 중요하다. 국내에서 청년 창업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부정적 분위기가 있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이나 가족 구성원의 창업을 장려하고,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창업이 기회형보다 생계형이 높다는 점, 사농공상의 출세 지향적인 국내 분위기와 관련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창업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한정화, 2012)와 연관성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위협과 불안 요소를 주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생계형보다 기회형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교육,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무형, 유형 자원도 가족 내에서 공유되고 전수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모나 가족이 창업을 장려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의 자원을 전수받을 수 있으면서 창업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제거되어 대학생 창업 의지가 고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실무 중심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인

교육 차원에서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기회 인식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충분한 기업가적 태도가 성숙될 때 보다 더 높은 창업기회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개념 개발(concept development)과 사업 개발(business development)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창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의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 측정에 대한 폭넓은 연구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대학 창업교육 활동 증가에 따른 효과 측정 및 방향성에 대해 주기적이고 연구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 변수 및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에서 창업잠재성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 창업관련 연구에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잠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한 지각된 열망과 지각된 실행가능성이 형성되어야만 창업의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창업잠재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샘플수가 적다는 점이며, 지역 또한 서울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가적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론적 고찰이 폭 넓게 이루어지지 않아 탐색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방향은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선행 변수로 기업가정신보다는 기업가적 태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연구에서 적합하도록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1), 493-507
- 고혜림·홍창남(2016).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지방교육경영*, 19(1), 67-87
- 권기환·권기훈(2011). 제휴 역량은 글로벌 제휴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15(4) 235-263

- 김문희(2016).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글로벌 리포트*
- 김종석(2004). 창업과 경제활성화, *세계경제연구원*
- 김주미·오상훈·양재경(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대학알리미(2019). *창업교육지원현황*, Retrieved 2021.3.2. from <https://www.academyinfo.go.kr/uiiph/unt/unmcom/RdViewer.do>.
- 대학알리미(2020). *창업교육지원현황*, Retrieved 2021.3.2. from <https://www.academyinfo.go.kr/uiiph/unt/unmcom/RdViewer.do>.
- 문영주·황미경(20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멘토링 경험 및 멘토링 기능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4(Spring), 93-111.
- 박철·강유리(2010).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2(2), 225-246
- 박새미. (2009). 청소년의 역할모델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병문·홍효석(2013). 창업자 특성과 사업기회의 상황 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19-28.
- 이상석(2011). *창업론*. 서울: 도서출판 창람.
- 조병주(1998). 창업 기회원천 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20(1), 245-266.
- 최민정·박재환(2017).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3), 135-14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 *대학진로교육현황조사*, Retrieved 2021.4.6. from <https://www.krivnet.re.kr/ku/da/kuBAAVw.jsp?orderBy=N&EW&gn=E1-E120210153>.
- 한정화(2012). 실패기업인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지식경제부.
- Aliouat, B., & Ben Cheikh, A.(2009). *Les Déterminants Environnementaux de l'Intention de Créer une Start-up en TIC*, Conférencesde l'Académie de.
- Almqvist, S., and Bjornberg, A.(2010). *Selecting Self-Employment : The Influences on Female Entrepreneurs in Gaborone*.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Bachelor Thesisl'entrepreneuriat, Sophia Antipolis, France.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lison, C.W., Chell, E., & Hayes, J. (2000). Intu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1), 31-43.
- Alvarez, S.A. & Barney, J.B. (2002). *Resource-based theory and the entrepreneurial firm*. In M.A. Hitt, R.D. Ireland, S.M. Camp, & D.L. Sexton (Eds.). *Strategic entrepreneurship: Creating a new mindset* (pp. 89-105). Oxford: Blackwell.
-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105-123.
- Athayde, R.(2009). Measuring Enterprise Potential in Young Peopl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481-500.
- Athayde, R.(2012). The impact of enterprise education on attitudes to enterprise in young people, *Education and Training*, 54(8), 709-726.
- Bagozzi, R. P. and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rough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Nir, A., Watson, W. E. and Hutchins, H. M. (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 Beaver, G.(1995). *Entrepreneurship: Starting, Developing and Managing a New Enterprise*. Robert Hisrich and Michael Peters. Irwin Publishing Ltd.
- Bechard, J. P., & Toulouse, J. M.(1998). Validation of a didac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317-332.
- Blanton, H.(2001), Evaluating the Self in the Context of Another: The Three-Selves Model of Social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Cognitive Social Psychology :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Mahwah, NJ: Erlbaum, 75-87.
- Busenitz, L. W., Tang, J., & Kacmar, KMM(2012).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the pursuit of new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1), 77-94
- Buunk, A.P., Peiró, J.M., & Griffioen, C.(2007). A Positive Role Model May Stimulate Career-Orient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7), 1489-1500.
- Chin,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Marcoulides, G.(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5-336.
- Cho, B. J.(1998),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of Korean Startups and Implications for Opportunity Search Strategy, *Asia-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0(1), 245-266.
- Choi, M. J., & Park, J. W.(201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valuation: A Focus o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135-146.
-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rbett, A. C.(2007). Learning Asymmetries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1), 97-118
- Covin, J. G., & Slevin D. P.(2002). *The Entrepreneurial Imperatives of Strategic Leadership*, [w:] M. A. Hitt, R. D. Ireland, S. M. Camp, D. L. Sexton (eds.),

- Strategic Entrepreneurship: Creating a New Mindset, Blackwell Publishers, Oxford.
- Cox, L., Mueller, S., & Moss, S.(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286-299.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Curran, J. & Burrows, R.(1986), The sociology of petit capitalism : A trend report. *Sociology*, 20(2), 265-279.
- DeKoning, A.(1999). Conceptualizing Opportunity Recognition as a Socio Cognitive Process. *Centre for Advanced Studies in Leadership*. Stockholm.
- DeTienne, D. R., & Chandler, G. N.(2004).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Its Role in the Entrepreneurial Classroom: A Pedagogical Approach and Empirical Tes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3), 242-257.
- Dutta, D. K., & Thornhill, S.(2014). Venture cognitive logics, entrepreneurial cognitive style, and growth intentions: a conceptual model and an exploratory field study.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4(2), 147-166.
- Dyer, J. H., Gregersen, H. B. & Christensen, C. M.(2008). Differences between innovative entrepreneurs and managers: behavioral patterns that facilitate opportunity recognition,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2, 317-338.
- Emin, S. (2004), Les Facteurs déterminants de la Création d'Entreprise par les Chercheurs publics: application des Modèles d'Intention, *Revue de l'Entrepreneuriat*, 3(1), 6-19.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u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 Fitzsimmons, J.R. & Douglas, E.J.(2005),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Cross-Cultural Study of Potential Entrepreneurs in India, China, Thailand and Australia", paper presented at the Babson Kauffman Entrepreneurial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MA.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tewood, E. J., Shaver, K. G., & Gartner, W. B.(1994). Finding the entrepreneur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3), 5-9.
- Gemmell, R. M., Boland, R. J., & Kolb. D. A.(2012). The Socio-Cognitive Dynamics of Entrepreneurial Id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5), 1053-1073.
- Gibson, D. E.(2003). Develop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 Role Model Construals in Early, Middle, and Late Career Stage, *Organization Science*, 14(5), 591-610.
- Gibson, D., Harris, M. L., Mick, T. D., & Burkhalter, T. M.(2011). Comparing the entrepreneurial attitudes of university and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2), 11-19.
- Gibb, A.(1987). Enterprise culture-its meaning &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1(3), 2-38.
- Gibb, A.(1993). The enterprise culture and education.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1(3), 11-34.
-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07-127.
- Hair, J., Sarstedt, M., Ringle, C., & Mena, J.(2012). An Assessment of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14-433.
- Han, J. H., Ha, G. S., Lee, Y. D. and Lee, J. S.(201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ystem support to the challenge of failed businessman*,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Higher Education in Korea(20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Retrieved 2021.3.2. from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r.do>.
- Higher Education in Korea(2020).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Retrieved 2021.3.2. from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r.do>.
- Hulland, J. (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 Jarvis, L. C.(2016). Identification, Intentions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2(2), 182-198.
- Kaish, S., & Gilad, B.(1991). Characteristics of opportunities search of entrepreneurs versus executives: sources, interests, general alert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1), 45-61.
- Kang, J. H., & Yang, D. W.(2016).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493-507.
- Kim, J. M., Oh, S. H. & Yang, J. K(2007),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Korea : Focusing on the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Kim, J. S.(2004). *Start-up and economic revitalization*, seoul: IGE.
- Kim, M. S., & Hunter, J. E.(1993). Relationships among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part 2, *Communication Research*, 20(3), 331-36.
- Kim, M. H.(2016).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ECD discuss trends and practices, Global Report.
- Kirzner, I.(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 H. R., & Hong, C. N.(2016) Effect Analysis of Short-term Start-up Education Program: Mainly with the Start-up Circle in D University,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19(1), 67-87.
- Ko, S. & Butler, J. E.(2007), Creativity: A Key Link to Entrepreneurial Behavior, *Business Horizons* 50(5), 365-372.
- Koller, R. H.(1988). On the Source of Entrepreneurial Idea.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Kourilsky, M. L.(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Kansas, MO: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Kraaijenbrink, J., Groen, A., & Bos, G.(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110-125.
- KRIVET(2020), *current status of career education in university*, Retrieved 2021.4.6. from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orderBy=N&EW&gn=E1-E120210153>.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1, pp.5-21.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erprise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Kwon, K. H., & Kwon Ki Hoon(2011). Does Alliance Capabilit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Ventures with Global Alliances?,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15(4) 235-263.
- Lee, J. H., & Bian, G. X.(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2011(3), 37-45.
- Lee, S. S(2011). *Entrepreneurship*. seoul: Book Publication Cheongram.
- Lengyel, G.(2012). *Potential Entrepreneurs. Intreprenurial Inclination in Hungary, 1988-2011*. Budapest.
- Liu, T.C., Chen J. V. & Hsu P.Y. (2014). Opportunity recognition and cooperation flexibility of entrepreneurial franchisee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4(4), 506-525.
- Lucas, W. A., & Cooper, S. Y.(2005). Measur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EDGE conference: bridging the gap: entrepreneurship in theory and practice, 11-13.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mpkin, G. T., Hills, G. E., & Shrader, R. C.(2004). *Opportunity recognition*. In H.P. Welsch (Ed.), *Entrepreneurship: The way ahead* (pp. 73-90). New York, NY: Routledge.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Free Press. New York.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Morris, M. H., & Jones F, F.(1999). Entrepreneurship in established organizations: The case of the public sect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4 (1), 71-91.
- Morrison, G. S.(1998).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7th ed.). N. J.: Prentice Hall.
- Munoz, C. A., Mosey, S., & Binks, M.(2011). Developing Opportunity-identification Capabilitiesinthe Classroom: Visual Evidence for Changing Mental Frame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0(2), 277-295.
- Park, C., & Kang, Y. R.(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S. M.(2009).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role models on their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 Peterman, N. E., &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 129-144.
- Piperopoulos, P., & Dimov, D.(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985.
- Renko, M., Kroeck, K. G., & Bullough, A. (2012). Expectancy theory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39(3), 667-684.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5, 13-31.
- Ronstadt, R.(1988). The corridor princip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31-40.
- R. P. Vecchio. (2003).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Common trends and common thread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303-327.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Ryan, T. R.(1970). *Intentional behavior: An approach to humanmotiva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Saeed, S., Yousafzai, S. Y., Yani De Soriano, M. & Muffatto, M.(2013).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 1127-1145.
- Scherer, R., Adams, J., Carley, S., & Wiebe, F.(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 53-81.
- Schumpeter, J.(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Transaction Publishers.
- Schumpeter, J.(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Seol, B. M., & Hong, H. S.(2013). A Study on the Business Opportunity Source and Searc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9-28.
- Shane, S., & Nicolaou, N.(2015). Creative Personalt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The Tendency to Start Business: A Study of Their Genetic Predisposi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3), 407-419.
- Shapiro, A.(1981). Self-renewing economies.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5, 19-22.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Tenenhaus, M., Vinzi, V., Chatelin, Y., & Lauro, C.(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8(1), 159-205.
- Timmons, J. A., & Spinelli, S.(200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6th ed.)*. New York: McGraw Irwin.
- Vazquez, R., Alvarez, L. I., & Santos, M. L. (2002). Market orientation and social services i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6(9/10), 1022-1046.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Vinzi, V., Trinchera, L., & Amato, S.(2010). *PLS Path Modeling: From Foundations to Recent Developments and Open Issues for Model Assessment and Improvement, in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Vinzi, V et al.(Eds.), 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 Von Hippel E.(1994). Sticky Information and the locus of problem solving: Implications for innovation.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Working Paper*, 40(4), 429-439.
- Wang, Y. L., Ellinger, A. D., & Jim Wu, Y. C.(2013).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 Empirical Study of R&D Personnel. *Management Decision*, 51(2), 48-266.
- Wasdani, K. P., & Mathew, M.(2014). Potential for Opportunity Recognition: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3(3), 336-362.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Yu,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Hannarae Publishing Co.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ial Potential

Jongseo Son*
Jinsoo Kim**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potential in the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ly, this research confirmed the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the awareness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the attitude toward entrepreneurial , which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entrepreneurial potential of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art-up education and the role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reativity, leadership, and individual contro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search. Insight and achievement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search. Second, creativity, leadership, and insigh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ormation combination, and the sense of achievement and individual contro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formation combination statistically. Third, creativity, leadership, and individual contro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pportunity capture. Insight and achievement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pportunity capture. Fourth, information seeking and opportunity captur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entrepreneurship prospects, and information combin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statistically recognized entrepreneurship prospects.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ole model of university students, which are the subj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tivities supported by universities and governments, and suggested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ntrepreneurial potential of university students who did not entrepreneurship immediately because the perceived desire for and the perceived feasibility of entrepreneurship are formed.

KeyWords: Entrepreneurial Attitude,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Entrepreneurial Potential, Entrepreneurial Education, Role Model

* First Author, Professor, Sookmyung University, jsson@sm.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unny@cau.ac.kr